

방문교육지도사가 인지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교육요구

김미종¹ · 김태임² · 권윤정³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¹, 교수², 강의전담교원³

A Study on Educational Needs in Married Immigrant Women Perceived by Their Home Visiting Educator

Kim, Mi Jong¹ · Kim, Tae Im² · Kwon, Yun Jung³

¹Full-time Lecturer, ²Professor, ³Teaching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Nursing, Deajon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ducational needs of married immigrant women perceived by their home visiting educator. **Methods:** Data were col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structured questionnaires during July 1st to 28th, 2009. 5 HVE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 and 27 HVEs in the 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PSS/WIN program. **Results:** Educational needs of Married Immigrant Women were conjugal and family relationship, child rearing and child health care, health management, sex education, and self-identification. There is no proper teaching materials about child rearing for HVEs. The educational needs of HVEs were phys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screening skill and play according to the each developmental stage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Conclusion:** Family relationship, child rearing and child health care, must be stressed in educational program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t must be developed a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and teaching materials according to family developmental stages.

Key Words: Married immigrant women, Home visiting educator, Educational need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2002년 전체 결혼 건 수 중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5.2%이던 것이 2005년에는 13.6%, 2007년에는 11.1%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어서 2008년 전체 국제결혼 중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국제결혼 건 수 중 77.8%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2000년 6,945건에서 2005년 30,719건으로 약 5배가량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08년 28,163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증가양상이 두드러지는데 2008년 58,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0세 이하 인구 중 21%를, 신생아 중에는 3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im, 2009; Kim, Kim, & Kwon, 2008; Seol, 2005; Statistics Korea, 2008).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 하며, 국제결혼여성, 여성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민여성 등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또한 이들이 이룬 가정은 다문화가정, 혹은 국제결혼가정이라고 지칭되며 최근 그 비율이 증가되면서 우리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

주요어: 여성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지도사, 교육요구

Corresponding author : Kwon, Yun Jung, Department Nursing, Deajon University, 96-3 Yongwoon-dong, Dong-gu, Deajon 300-716, Korea.
Tel: 82-10-2702-6049, Fax: 82-42-280-2785, E-mail: hyun24h@djju.ac.kr

투고일: 2010년 4월 1일 / 심사완료일: 2010년 5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3일

려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건강문제, 한국사회화, 가족관계의 부적응,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지원체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Jeong, 2007; Kim, Kim, & Kwon, 2008).

그러나 우리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극단적인 인권침해나 가정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해결에 급급하여 대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갈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Hong, 2008).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민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국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독특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Shu, Kim & Kim, 2008). 올바른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며, 자신감의 증가는 양육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의 부족한 경우에는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 (Cho, Lee, & Lee, 1999; Oh, 2000).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전 양육경험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친정어머니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의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Lee, 2007; Suh, 2008).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양육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 건강관리 자원 이용의 어려움, 양육정보의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Kim, 200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전국 100여개의 다문화가족 사업지원단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에게 한국어와 자녀 양육을 위한 도움과 상담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하여 '방문교육지도사'라는 담당자가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가족상담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2,400여명의 방문교육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다 (Son, 2009). 2008년부터 양성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주로 40대의 기혼여성들로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멘토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현장성 높은 역할을 하고 있다 (Min, Kim, Lee & Lee, 2009). 이들은 어린 자녀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Suh, Kim, & Kim, 2008).

한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결혼 초기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한국어에 미숙하다. 반면에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직업적 특성상 결혼이주여성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적 표현이 서툰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접 교육요구도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방문했던 경험을 통해 인지한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을 물어봄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방문교육지도사가 인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요구 내용을 확인한다.
- 방문교육지도사가 인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을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이란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여성을 말하며, 취업이나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오는 여성취업자와는 구별된다 (Lee, 2008).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일개 지역에 거주하며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방문을 받는 결혼이주여성을 의미한다.

2) 방문교육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란 방문교육사업 및 가족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내용에 따라 한국어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가 있으며, 한국어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원 1~3급 자격을 갖추거나 전직 교사 등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아동양육지도사는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양육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본 연구에서는 충청지역 일개 군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위탁 양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배치되어있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업무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추출된 충청북도 일개 군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다. 연구는 심층면접 방법을 이용한 기초조사와, 기초조사의 내용을 다수의 대상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심층면접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문지도 경력이 풍부한 방문교육지도사 5명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추천받았다. 설문조사는 해당지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 27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자료수집절차를 진행하였다.

3. 연구도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28일 사이에 충청북도 O 군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5명의 대상자에게서 기초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얻을 수 있는 심층면접과 심층면접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방문교육사 집단 27명 전원에게 확인하고 보충하

기 위해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심층면접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와 음성녹음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에 시행하였다. 면접에 방해가 되지 않을 조용한 곳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대상자당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주제에 맞는 개방형질문을 준비하고 심층면접을 계획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은 '다문화 가정을 방문교육 할 때에 어려운 점, 문제점 및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이해와 관심을 표현하면서 최대한 경청하였고, 면담 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해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한 뒤 녹취하였다.

설문조사는 심층면접을 시행한 2주 후에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지역 방문교육지도사 27명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에 양해를 구하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5문항, 교육내용 준비 시 이용하는 자원, 다문화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 방문지도사 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포함한 7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7부 모두를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심층면담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녹취한 모든 면접내용을 3명의 연구자가 주제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질적 연구를 한 학기 이상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사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자료분석 과정을 거쳐서 면담내용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자료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였으며, 내용 분석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연구자간의 분석내용을 서로 교환하여 확인한 후에 차이점을 토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정리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모두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방문교

육지도사로서, 아동양육지도사 3명과 한국어교육지도사 2명으로 모두 5명이었다. 나이는 40~45세이고, 근무경력이 15~24개월 사이였으며, 학력은 모두 대졸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석한 방문교육지도사 27명은 모두 여성으로 양육부문 16명(59.3%), 한국어부문 11명(40.7%)이다. 평균연령은 41.6세이고, 평균 근무경력은 16.8개월이다. 학력은 대졸이 19명(70.4%)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5명(18.5%), 고졸이 3명(11.1%)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방문교육지도사가 인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요구도

1) 심층면접 결과

(1)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방문교육지도사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은 자녀양육, 자녀의 건강 및 질병관리, 음식 및 영양, 생활습관, 성교육 및 성상담, 남편과의 건강한 결혼생활, 가족과의 생활적응, 이웃과의 생활, 문화 및 예절, 갈등 중재기술, 자기관리 및 자기개발, 정체성 확립 등 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자녀양육 및 자녀의 건강관리, 남편 및 가족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이 결혼 후 수년 내에 아이를 임신, 출산하면서 타국에서 어머니가 되는데, 임신과 분만 뿐만 아니라 영아시기의 육아와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개는 나이가 어려서 자녀양육에 대해 잘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해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나 친정어머니가 알려주는 지식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애 생기니까 낳고, 같은 이주자들끼리 물어봐가면서 애 키우고... 뭘 모르니까 아파도 병원에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병원가기도 어렵고.. 보험도 안 되고..."

"친정엄마가 필리핀에서 의사인데도 시어머니가 당신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혼을 내서 속상해 하는 경우도 있었어. 타국여자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있고, 자기네 나라에서 배운 거랑 틀리니까 더 힘들지."

(3) 결혼이주여성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사용하는 방법들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남편, 양육의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조언, 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ives

Indepth interview (N=5)						
Case No.	Age	Gender	Education	No. of children	Type of educator	Experience (month)
1	43	Female	A college	2	Child rearing	24
2	45	Female	A college	3	Child rearing	18
3	40	Female	A college	2	Korean Language	15
4	41	Female	A college	1	Child rearing	22
5	41	Female	A college	2	Korean Language	15
Survey using questionnaire (N=27)						
Categories						n (%) or M±SD
Age						41.6±2.17
Gender		Female				27 (100)
		Male				0 (0.0)
Education		High school				3 (11.1)
		College				19 (70.4)
		Graduate school				5 (18.5)
Number of children		0				0 (0.0)
		1				3 (11.1)
		2				20 (74.1)
		≥ 3				4 (14.8)
Type of educator		Child rearing				16 (59.3)
		Korean language				11 (40.7)
Experience (month)						16.8±1.66

국어로 기록된 양육관련 책자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나, 지역적 특성이나 가족적인 특성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찾아가서 가르쳐주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였다. 양육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웃한 경우에는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조언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한계가 있고, 자국어로 된 양육책자가 있어도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거나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센터에서 가르쳐주는 걸 들으러 올 수만 있으면 좋지. 교육 받는 사람들은 잘해. 그런데 못 오는 사람이 더 많잖아. 너무 멀어서 못 오기도 하고, 가족이 못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둘이서 있는데.....",

"책이 있긴 한데 남편은 부인 글을 모르고 부인은 남편 글을 모르니 설명이 안 되지...."

(4) 관계형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대처방식에 대한 교육과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을 알게 해주는 교육뿐 아니라 나이 많은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나 삶보다는 '고향에 돈을 보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아서 돈보다는 가정과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가정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의 의미와 그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돈이 생기는 대로 다 지 집에 보내고, 남편한테 돈 달래서 또 보내고, 돈 안준다고 싸우고...가정이나 자식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우선은 자기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걸 먼저 배워야하는데....", "어리고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도 많고....저러다가 남편이 나이도 많은데....."

2) 설문조사결과

설문지를 통한 조사결과는 심층면접의 내용과 유사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중복가능하게 표시하도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부부 및 가족관계 (27명)와 자녀양육

과 자녀의 건강관리 (25명)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자아정체감형성을 위한 교육 (17명), 성교육 (13명), 건강관리법 (11명), 영양 (10명), 스트레스관리법 (10명), 문화예절교육 (3명)의 순이었다.

Table 2. Educational Needs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Repetition was Permitted) (N=27)

Education content	n (%)
Child rearing and child health care	25 (92.6)
Health management	11 (40.7)
Nutrition	10 (37.0)
Stress management	10 (37.0)
Sex education	13 (48.1)
Self-identification	17 (63.0)
Conjugal and family relationship	27 (100.0)
Korean culture and manners	3 (11.1)

3. 방문교육지도사가 인지하는 결혼이주여성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1) 심층면접결과

(1) 방문교육지도사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의 부족

방문교육지도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로 나뉜다. 하지만 방문교육지도 서비스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집을 방문하여 교육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지도사와 아동양육지도사를 막론하고 자신이 교육해야하는 부분 이외에도 어느 정도 양육 및 가족 내 갈등과 관련된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이 가정 내의 문제와 갈등에 접하는 기회가 많고 실질적인 양육기술이 필요하지만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어 가르친다고 애 보는 걸 안 봐줄 수 있나? 애 키우는 거 봐주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하는 거지....",

"교육에서 배운 거랑은 틀리죠. 배우는 내용은 구체적인 게 별로 없어요....내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했던 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알려주지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어려운 경우 많지요. 그럴 때는 답답해요.... 참 어려워요."

가정에 배치되기 전, 방문교육지도사들은 5일 동안 50시간의 소양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지도사는 자격요건 상 양육이나 가정갈등 중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고 있지 않고, 소양교육 내용에도 아동 양육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가정방문 시에 접하는 양육문제와 가정 내 갈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를 하기 어렵다. 아동양육지도사 역시 전직 보육교사, 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나 전문 자원봉사자 등으로 부모역할교육, 성교육, 아동양육지도사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가정으로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Min et al., 2009). 방문교육지도사와의 심층면접 내용에서도 50시간의 소양교육 내용에 자녀양육과 가족상담에 관련된 세부적인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양육 교육과 가족 문제를 중재할 때 체계적인 교육에 의해 습득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엄마들로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습득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육지도사이건 아동양육지도사이건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대한 기본 수준의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방문지도사를 위한 소양교육에서 주어지는 내용만으로는 육아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며, 가족 간의 갈등에 직면하는 일이 많은데 비해 이를 중재할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양육지도사를 위한 방문교육용 교재의 부재

방문교육지도사들, 특히 아동양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 여성을 교육할 때 사용할 교육내용과 교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한국어교육지도사는 공식적으로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초급, 중급, 상급의 단계별로 제작되어 제공되는 교재에 준해서 수업하면서 교재의 내용과 관계되는 생활지도 및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다. 그러나 아동양육지도사들에게는 방문수업을 통해 전달하도록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내용이나 아동양육지도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재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그때그때 대상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 아동양육지도사가 개별적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 자료를 준비한다. 각자의 교육 교재작성과 교육준비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는 '방문지도자 양성교재 및 활동 매뉴얼'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교재는 '그저 제목만 제시하는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육아잡지 등을 사용하여 자료를 보충하여 사용한다고 한다. 더욱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교육 자료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사용할 때 대상자가 '못 미더워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아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한 교육 자료들은 일관성이 없고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육효과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교육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는 수준에 따라서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해 갈 게 없지요. 그런데 양육은 뭘 알려줘야 할까, 어떻게 준비할까를 내가 교육계획 세워서... 내용 찾아서... 교육자료 만들어서 가잖아요. 답에는 그거 알려줘야겠다... 생각하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가는 거죠...."

"공식교재라고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그 사람 들한테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육아잡지 같은 것도 보고... 옛그제도 잡지에서 보고 했어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책이나 인터넷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기껏 만들어갔는데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인쇄돼서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속상하지요."

(3) 가족 발달단계별 교육의 필요성

심층면접에 참여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임신의 단계, 아동의 성장발달 시기별 혹은 가족의 발달단계별로 지도사가 지도해야 할 교육 내용이 정해지고, 그 교육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제작된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소양교육과 보수교육 및 공식적으로 제작하여 지원되는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에는 임신에서 분만 및 산욕기에 이르는 동안에 필요한 각 시기별 건강관리 및 산전/산후관리에 대한 내용, 아동의 발달 시기별 신체, 발달, 인지, 정서 및 사회적 특성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성장발달 점검사항, 발달 자극 기술, 인간관계 및 가족상담 기술, 사례제시를 통한 문제해결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여러명인 가정을 방문하다보면 아이들로 인해 교육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나 상담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어는 실력에 따라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몇 개월에는 뭐 알려주고, 몇 개월에는 뭐 알려주고... 그런 것도 없고...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은지, 어떤 놀이가 있는지도 알려주고 싶은데... 애들 나이에 맞게 사용하라고 주는 교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족들끼리 문제 생기면 참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담하는 방법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면 좋겠어요."

"엄마 가르치려 가면 엄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애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가르쳐 지나요? 공부하다가 애보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2) 설문조사 결과

심층면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방문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의 출처는 Table 3과 같다.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교재인 '방문지도자 양성교재 및 활동 매뉴얼' (27명)과 함께 인터넷 (20명), 전문서적 (19명), 육아잡지 (12명)와 전문인 (1명)이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자신들의 교육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내용들을 보면 Table 4와 같다. 방문교육지도를 하기 위해 교육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상담기술 (15명)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아동 놀이지도 (9명), 아동 성장발달 검사기술 (6명), 아동성장발달 특성 및 문제해결방법 (5명), 성교육 (6명), 임신/육아/출산 (1명), 양육비 지원과 같은 정부혜택에 대한 정보 (1명) 순이었다.

논 의

누구나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받은 방법이나 조언을 사용한다 (Kim, 2009).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의 양육시기와 문화적 적응시기가 겹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ong, 2008).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결혼 전 양육경험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친정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낯선 시어머니와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출신국가의 전통 양육방식을 무시 혹은 차별하여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여러 연구들에서도

Table 3. Informations Resources in HVEs (Repetition was Permitted) (N=27)

Resources	n (%)
Official material for the home visiting educators	27 (100.0)
Internet	20 (74.1)
Professional books	19 (70.4)
Parenting magazine	12 (44.4)
Professionals	1 (3.7)

Table 4. Contents that Need More Education in HVEs (Repetition was Permitted) (N=27)

Categories	n (%)
Pregnancy/child birth/child care/	1 (3.7)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development and problem solving skill	5 (18.5)
Growth and development test skill	6 (22.2)
Guidances in children's play	9 (33.3)
Counselling techniques	15 (55.6)
Sex education	6 (22.2)
Informations about the benefits than can receive from the government	1 (3.7)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Suh (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결혼 후 1~2년 이내에 의사소통이 되기도 전에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양육에 대한 기본 지식과 주위의 도움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Jung (2007)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육경험이 없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양육에 대한 정보적 지지도 받지 못해 아기의 장애 문제를 나중에 알게 된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Kim (2009)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건강관리의 취약점은 양육방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 건강관리 자원 이용의 어려움, 양육정보의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제공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외국연구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들을 볼 수 있다 (Koniak-Griffin, Logsdon, Hines-Martin, & Turner, 2006; Rice, 2002).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들 자녀의 성장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ong, 2008). 즉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신체성장발달이 내국인 가정의 영유아 신체성장발달 양상에 비해 유의하게 저조하다는 연구들 (Kim, Kim, Kwon & Jun,

2010; Kim, Kim, Kwon, & Nam, 2009)의 보고를 고려해 볼 때 여성결혼 이주자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양육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외출이 어려워 찾아가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어 방문교육지도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교육지도사들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양육과 자녀의 건강관리 이외에도 건강한 결혼생활과 관련된 교육과 가족 내 갈등 중재 및 상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해당된 교육역할을 막론하고 가정문제와 양육과 같은 주요 문제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는 Min 등 (2009)의 연구결과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87.9%가 상담 및 갈등중재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부장적 위계를 중시하는 가족구조라는 외부환경에 맞물려 있어서 구조적 차원에서의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Song (2008)의 연구보고를 지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기관리 및 자기개발,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서 가치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추후 교육 프로그램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지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방문교육지도사가 경험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지도사는 대상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가정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할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며 (Son, 2009), 한국어 교육지도사의 경우에도 양육이나 가정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들은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육지원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들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주어지는 소양교육 내용에는 양육이나 가족 내 갈등 중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신생아 및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Kim (2009)의 연구나, 방문교육지도사의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이론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Son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에 있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동의 성장발달 검사법, 성장발달에 따른 문제해결방법과 놀이지도 등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발달단계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재나 매체가 없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 역시 이에 대한 교육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언어능력의 단계별로 개발된 공식적인 교재가 주어지는 한국어 방문교육과는 다르게, 아동양육지도사들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육교재가 제공되지 않아 결혼 이주여성은 아동양육지도사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검정되지 않은 교육자료를 통해 지식을 전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인 교육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재 및 교육매체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Min 등 (2009)의 연구에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자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수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방문간호사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과 신뢰성이 검증된 교재개발 등의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방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일개 군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방문교육지도사 27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업무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는 기초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담과 심층면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내용으로는 자녀양육, 자녀의 건강 및 질병관리, 음식 및 영양, 생활습관, 성교육 및 성상담, 남편과의 건강한 결혼생활, 가족과의 생활적응, 이웃과의 생활, 문화 및 예절, 갈등 중재기술, 자기관리 및 자

기개발 및 정체감 등 이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부부 및 가족관계와 자녀양육 및 자녀의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문교육지도사들 중 아동양육지도사들은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하는 교재가 있는 한국어교육지도사와는 달리 방문수업을 통해 전달해 주어야 하는 실제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가 부족하여 결혼이주여성을 교육하는데 사용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어교육지도사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분야인 양육이나 가정문제에도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에게 가정문제 중재를 위한 상담기술과 가족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양육 방법을 보강한 교육 및 적절한 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소수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요구와, 방문교육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당면 문제들을 파악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정체성 확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첫째, 방문교육지도사들, 특히 아동양육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을 방문하여 자녀양육,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발달 사정 등을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재 및 매체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과,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Cho, K. J., Lee, K. J., & Lee, O. J. (1999). The effect of the educational program on caring-confidence and rearing attitude in mothers with newborn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5(1), 84-96.
- Hong, M. Y. (2008). *A study on the supports for married immigrant women's adaptation-focused on a rural area*. Master's thesis. Deajeon University, Deajeon.
- Jeong, N. O. (2007). *A prediction model of health-promoting behavior in married immigrant women*. Doctorial Dissertation, Chunbuk University, Cheonju.
- Jung, S. H. (2007). *An explorative study on immigrant women's lives*.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 Kim, J. H. (2009). *The development of a child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mothers*. Doctori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J., Kim, T. I., & Kwon, Y. J. (2008). A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contraception in married immigrant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14(4), 323-332.
- Kim, T. I., Kim, M. J., Kwon, Y. J., & Jun, M. K. (2010). Evaluation of physical growth and developmental status of infants and childre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6(2), 164-174.
- Kim, T. I., Kim, M. J., Kwon, Y. J., & Nam, M. J. (2009).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n in a rural area*.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2009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summer conference. Deajon University, Deajeon.
- Koniak-Griffin, D., Logsdon, M. C., Hines-Martin, V., & Turner, C. C. (2006). Contemporary mothering in a diverse society. *J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 35(5), 671-678.
- Lee, E. S. (2008). *Culture need analysis for married migrant wom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 S. (2007). *Investigation of the actual condition of women immigrants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a study of educational programs fo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Doctorial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 Min, M. S., Kim, L. S., Lee, C. A., & Lee, S. Y. (2009). *Multicultural specialist training status and policy issue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May, 20). *Visiting education service for married immigrant woman*. Retrieved April 27, from <http://www.hope4u.go.kr/uss/svc/saf/SvcSafeList.do?p=A000&p1=A200&p2=A211>.
- Oh, M. Y. (2000).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rimiparas' knowledge and self-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puerperium*.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Rice, P. L. (2002). Child rearing practice and child health among the Hmong in Australia: Implications for health services. *INT J Health Serv*, 32(4), 817-836.
- Seol, D. H. (2005). *Results of survey about living status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and counterplan of MHWFA*.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Son, J. R. (2009). *About multiculturalism family feminine visit education map resignation role conflict and role ambiguity and sex role stereotype research*.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eagu, Deagu.
- Song, M. K. (2008). A Study on multi-cultural counseling of marriage migrant women. *Women's Stud Soc*, 23, 41-51, Seoul: Women's University Women's Research Institute.

Statistics Korea (2008). *Dynamic statistics of population*. (Marriage).
from [http://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
method=search&catgrp=nso2009&catid1=k09__0000&catid
2=k09i__0000&forward=search](http://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method=search&catgrp=nso2009&catid1=k09__0000&catid2=k09i__0000&forward=search)
Suh, H. R., Kim, K. E., & Kim, Y. H. (2008). A study of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 stress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 Family Relations*, 13(3), 121-143
Suh, J. M. (2008). *Study on the current fact and settlement ways for
foreign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farming areas of
GyeongBuk provinc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agu.